



즉시 배포용: 2017년 8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방위군 병력 및 항공기를 추가 파견하여 허리케인 하비(HARVEY) 대응 지원

텍사스에서 구출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2차 구조기와 인력 16명 이상 파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텍사스의 허리케인 하비(Harvey)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방위군 자원을 추가로 파견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106th Rescue Wing의 공군병 15명 이상을 태운 HC-130 수색 구조 항공기가 오늘 아침 가브레스키 공군기지(Gabreski Air National Guard Base)를 떠나 텍사스주 포트 후드(Fort Hood)에 오늘 늦게 도착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의료 계획 장교(Regional Medical Plans Officer)가 목요일 텍사스로 출발하여 지역 병원에서 환자 대피 및 수송을 지원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부의 이웃들이 허리케인 하비(Harvey)의 여파에 계속해서 대응하고 있기에, 지속적인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돕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배치할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대자연으로 인해 일어나는 재해에 익숙하며,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러한 노력을 계속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 배치는 주지사가 텍사스주 및 루이지애나주에 뉴욕주의 지원을 약속한 며칠 후 이루어졌으며, HH-60 페이브호크 구조 헬기 3대와 함께 104 공군병, 다른 HC-130과 여러 보트 및 선박이 파병되었습니다. 월요일, 헬리콥터 3대의 구조 팀과 3개 보트 구조 팀이 텍사스 지역 휴스턴과 케이티에 거주하는 255명의 주민 구조 작업을 맡았습니다.

뉴욕주는 오래전부터 자연 재해를 입은 다른 주들을 돕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Matthew, Frances, Ivan, Dennis가 휩쓸고 간 뒤에도 플로리다에 이와같은 지원팀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허리케인 Gustav가 덮친 후에도 18명으로 구성된 팀을 추가 파견했고 또한 허리케인 Katrina 후에는 300명 이상의 다수 기관 합동팀을 루이지애나에 파견하여 지원했습니다. 이밖에, 뉴욕주는 산불 진압 지원에 서부 주로 여러 번 소방대원들을 보내왔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